

# 만사대평

2017년  
6월호



## 제2회 물양장살롱

# 깡깡이 골목 정원 가꾸기

지난 5월 13일 제2회 \*물양장살롱 깡깡이 골목정원 가꾸기\*가 부산 영도구 남항동 대평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좋은 도시의 요건은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일 것'이라는 어느 도시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깡깡이마을에선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네요. 그래서 이번 물양장살롱은 <골목 정원 가꾸기>라는 주제로 마을 주민, 기획가, 방문객이 함께 화분에 화초를 심고, 그 화분으로 거리 곳곳을 꾸며보는 골목정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쌈지공원에서는 일일 정원 카페를 열어 무료

로 음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사전 신청자에 한해 통선 및 거리 투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구 대평유치원에서는 마을 중고 장터와 마을사진전, 장수사진 촬영, 작은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물양장살롱에는 마을 주민과 외부 방문객 등을 포함해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분들, 영도구 부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1. 골목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마을버스종점 로터리
2. 마을시장 골목을 화사하게 장식한 화분들
3.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깡깡이예술마을 상징조형물

\***물양장살롱** 문화기획가와 마을주민, 예술가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형 마을축제입니다. 작년 9월 말 제1회 물양장살롱 '깡깡이 길놀이'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회 다른 주제와 콘셉트로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2~3면에서 계속



제2회 물양장살롱이 꿈나무 새싹이 놀던 구 대평유치원 앞마당에서도 열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행복한 마을 중고장터입니다. 좌판 형태로 차려진 10여 개의 부스에선 판매자들이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마을 중고장터에 나온 물건으로는 의류, 액세사리, 그릇, 아이 장난감 등이 많았고 먹거리로는 쿠키, 어묵탕 등이 있었습니다. 대평동 주민분들도 있고 영도구 내에 다른 동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고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이었습니다. 중고장터답게 한바탕 흥정과 웃음이 오갔습니다. 판매 금액은 마을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미리 사업단을 통해 물건을 기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 부스에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북적였습니다. 또 밴드가 손님을 위해 멋진 음악을 연주해 주어 한층 장

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대평유치원에선 어르신들께서 장수사진을 찍으셨는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많이 어색하신 듯 멋쩍게 미소 지으시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져오신 물건을 전부 파신 분도 있고 조금 남기신 분도 있었지만 주민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마을중고장터가 멋지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KBS부산, KNN, CJ헬로비전 방송에서도 취재를 해가셨습니다. 80년대 부녀회를 중심으로 대평동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양장살롱을 하면서 근 40년 만에 중고장터를 연 것인데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저렴하게 팔아 다른 사람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김동진 편집위원



## 물양장살롱 말말말

인터뷰·이종렬 주민기자

“마을 사진 전시하는 곳에 들어가니 사진 말고도 예전에 들을 수 있었던 깡깡이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깡깡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마을주민)”

“대체적으로 신선하고 좋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방문객)”

“꽃을 심고 물을 주었더니 스티커를 줬습니다. 삼지공원에 가서 스티커를 보여주었더니 예쁜 화분을 줬어요.(마을주민)”

“얼마 전까지 유치원이었다고 하는 곳에 가니 인물 캐릭터, 열쇠고리,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먹거리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다양했습니다.(방문객)”

“골목 속에 그런 공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미자차 한 잔 마시고 약과도 먹었습니다.(마을주민)”

“마을 주민 분이 직접 해설을 해줬습니다. 안내에 따라 마을 곳곳을 돌아봤는데 특이한 마을이더라구요.(투어체험자)”

## 가까운 곳에서의 특별한 체험

글 및 사진·김민기(회사원)

\* 제2회 물양장살롱에서 준비한 <깡깡이마을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해주신 분의 방문후기입니다.



▲ 마을에서 50년 동안 거주하셨다는 마을해설사와 수리조선소에 들어온 일본 선박



▲ 칼스크로나 해군기지 안에 있는 17세기 조선소 건물(좌)

▲ 가이드 어르신 모습(우)  
(해군으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어르신께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영** 도에서 대학을 나와 조선관련 회사들에서 몇 년간 일을 했었던 직장인입니다. 영도에서 4년간 학교를 다니고 관련 회사들에서 몇 년을 일해도, 배를 타거나 조선소에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이지만 배를 구경할 수 있거나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깡깡이마을 투어 소식을 듣고 배도 타보고 수리조선소들도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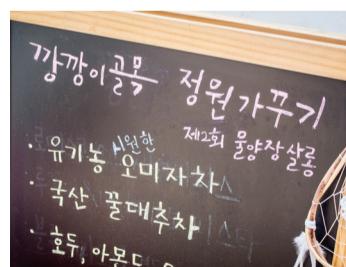
투어는 너무나 재밌고 좋았습니다. 깡깡이마을에서 수십 년 생활하신 어르신들이 여러 달 동안 해설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여 설명해주시는 내용들은 꽤 전문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그냥 책으로 읽는 역사와 달리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스웨덴에서 비슷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스웨덴을 투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스웨덴 칼스 크로나 항구에 갔었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해군시설과 조선소가 같이 있는 곳인데, 해군이 아직 실제 사용하는 곳이라 개인이 혼자 들어갈 수 없어 그곳에서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때도 해군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어르신께서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깡깡이마을에서도 마을에 살며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직접 해설을 해주셔서 흥미로웠습니다.

깡깡이마을 투어에서는 마을에 정박해 있는 배들에 대한 설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둘러보는 통선 투어를 했는데, 바다에서 수리조선소와 영도대교 등 부산의 전경을 보는 것은 꽤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승선 체험을 하면 이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 들어가 구경하는 것이 다인데, 사실상 타 볼 기회가 없는 배를 타고 자유롭게 관람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요즘 부산의 많은 마을들이 재개발로 옛 모습이 사라지고, 그 마을만의 개성을 잃어 가고 있어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깡깡이마을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부산의 옛 모습과 이웃들 간의 정감 있는 모습을 보니 아직 부산에도 이런 곳이 남아 있어 좋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깡깡이마을 투어가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저처럼 즐겁고 특별한 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한근(81)

## 나의 오래된 점포와 이까선창

\* 본 기사는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으로 인터뷰 당시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 작성하였습니다.

▲ 이까선창 모습

내가 대평동에 처음 이사를 온 것이 15살이었어. 6.25 사변 끝난 직후인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마을 주변엔 하꼬방(판잣집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대부분이었지. 내가 원래는 영선동에 살았는데 놀아도 대평동에 와서 놀았거든. 그러다가 족까지 몽땅 다 대평동으로 이사를 온 거지. 그렇게 65년을 대평동에서 산거야. 낡고 허름해 밖에서 보면 가게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슈퍼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아. 이까선창 통장집 슈퍼라고 하면.

군에서 제대하고 마을로 돌아오니 나보고 통장을 하라고 하더라고. 정말 열심히 했어. 내가 통장을 했을 당시에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였거든. 통장이니까 내가 앞장을 섰지. 수원까지 올라가 ‘새마을지도자 연수’도 받았는데, 내가 새마을 사업 지도자 1기야. 마을로 내려와 하수도 공사, 도로 공사, 방범 교육 등 이것저것 한다고 노력 많이 했다. 마을이 조

금씩 나아지는 게 보여서 보람도 있었지. 그렇게 통장을 한 30년 하니까 나이가 많다며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30대에 맙아 60넘어서까지 했으니 최고 오래 한 거지. 통장 관두고 시작한 게 지금 이 작은 슈퍼야. 뱃일 하는 사람들 목이나 축이고 가라고 시작한 게 22년 정도 됐어.

이까선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까는 우리말로 오징어인데, 여기에 오징어배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붙은 이름이야. 젊었을 때는 여기 바닷물이 맑아서 배가 나가면 수영도 하고 세수도 하고 재밌게 생활했어. 지금에야 생소한 이름일지 몰라도 그때 이까선창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부산은 물론이거니와 경남, 강원도, 충남 등 전국에서 몰렸지. 그때 오징어배가 막 들어오면 여기다 오징어를 찍- 풀고 장사꾼들이 몰려와 고기를 한통씩 사가곤 했어. 주민들도 오징어를 백 마리 씩 사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고, 젓갈한다고 사가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오징어배가 몰린 거냐고? 그때는 다른 데에 배를 정박할 곳이 없었거든. 다른 항만은 큰 배들이 다 차지했고, 자갈치나 부민동은 배를 댈 데도 없고 경매도 없었고. 여기 이까선창이 파도 없이 잔잔하고,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도 없고. 작은 오징어배들은 정박하기 딱 좋은 곳이었지.

이까(오징어)가 끝나니까 며루치(멸치) 배가 들어오데. 그물을 펴 놓고 지금 기장에서 하는 식으로 며루치를 털었는데 여기서 다텔었어. 아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 앞뒤 길쭉하게 생긴 ‘중선배’라고 멸치 잡는 배가 있거든. 그것도 몇 척이 들어왔지. 당시만 해도 다른 데에 배 댈 곳이 없으니까 이까선창에 오징어며 멸치며 다 풀었는데, 부민동이랑 자갈치에 어시장이 생기면서 거기로 다 몰려간 거야. 지금 이까선창에 들어오는 배들은 바다의 상선과 원양어선을 위해 사람과 물자를 나르는 수송선이 대부분이야. 이제 이까선창은 이름만 남은 거지.



▲ 김한근 어르신의 점포 안



▲ 인터뷰 중인 김한근 어르신

시간이 지나보니 내가 기억하는 예전 모습과 지금 모습이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얼기설기 지은 흙집과 좁은 도로. 어서 여기 사람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 하는데, 깜깜 무소식이니 좀 섭섭하지. 나야 여기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마는, 앞으로 이곳에서 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마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점포는 어떻게 할 거냐면... 1995년부터 운영했으니까 이제 22년 정도 됐나? 여기 통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타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디 쉴 데가 없어. 우리 집이 휴게실이지. 예전에는 음료수도 팔고 주류 장사도 열심히 했지만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아졌어. 장사하기도 힘들고. 그냥 뭐 팔리면 팔리고 말면 마는 거지. 누가 여기까지 와서 비싼 돈 주고 음료수를 사먹겠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잔씩 사주면 그걸로 됐어. 접자니 허가 낸 게 아쉽기도 하고 한두 잔씩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땜에 한다. 이까선창의 마지막 슈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지키고 그냥 하는 거지.(웃음)

인터뷰·윤종건 객원기자 (한국해양대학교 3학년)  
일러스트·정종우



▲ 이까선창에 위치한 김한근 어르신의 점포

## 이집윤 노인회장님 한국추사서화예술전국대전 작품 출품



지난 4월 2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추사서화예술전국대전에 이집윤 노인회장님(化松 李集允)께서 출품하신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추사 서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29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출품하신 작품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삼각산 백운대에 올라 북벌정벌을 다짐하며 지은 시를 이집윤 노인회장님께서 추서체로 작성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사건의 단초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진 제공·대평노인회 김성호 부회장님

포토  
노트



### [ 작품소개 ]

#### 등백운봉 登白雲峰

인수반라상벽봉 引手攀蘿上碧峰  
일암고와백운중 一庵高臥白雲中  
약장안계위오토 若將眼界爲吾土  
초월강남기불용 楚越江南豈不容

#### 백운봉에 올라

담쟁이덩굴 휘어잡아 푸른 봉우리 오르니  
암자 하나 높다랗게 백운 속에 누워있네  
눈 안에 드는 땅이 모두 내 것이라면  
초나라와 월나라가 다투던 중국 강남땅도  
내 것이 안 되라.



####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녀가기”

그림 제공·이유진(일러스트레이터 '맨발이'로 활동 중)

## 06 아트인 깡깡이



▲ 신혜미 작가의 <영도 사람들>, 삼남기계공업사 옆 벽면

예술가를 만나다

## 월아트 프로젝트 2부 신혜미 작가



▲ 신혜미 작가님

깡깡이마을 월아트 프로젝트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부산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부터 계속 머물렀어요. 깡깡이마을 작업 덕분에 다른 곳에서 작업 의뢰도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작업도 많이 하고 바쁘게 지냈네요. 온천천, 서면 등 거리에 개인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엔 부산문화재단의 제안으로 영도 신기산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척 바빴지만 뿌듯한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업 일정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부산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삼남기계공업사에 ‘영도 사람들’이라는 벽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나가다 만난 사람들, 거리에서 만난 강아지 등 스쳐지나가는 것들 중 특징이 분명한 것들을 그립니다. 그것들을 스케치를 한 다음 벽에 남기는데, 영도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영도에서 벽화 작업을 하며 만난 사람들, 마을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에게서 영감을 얻었고 그것을 벽에 남겼습니다. 사실 ‘영도 사람들’은 깡깡이예술마을 월아트 프로젝트의 공식 작업은 아니었고 추가된 작업인데 두 달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받은 긍정적 영향들을 개인적으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매력적인 벽들도 많아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작업 기간 동안 공업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불임성 좋은 작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격이 좀 그런 편입니다. (웃음) 고맙게도 작업 기간 동안 공업사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심철선구공업사 사장님께서 차로 옮겨주신 적도 있고, 최대한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동명기술 철공소 분들도 틈틈이 공구 같은 것들을 빌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무언가 하는 걸 이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예절이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같이 작업한 스텝 모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업사 분들 덕분에 훨씬 쉽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월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즐거운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쁩니다. 자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모든 분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통해 또 다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른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아트 프로젝트의 운영업무를 담당했던 신혜미 작가는 현장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특유의 밝은 성격과 불임성으로 동료들을 쟁이며 힘든 작업을 굳건히 완수해냈습니다. 처음 하는 프로젝트 운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이번 월아트 프로젝트의 숨은 공신이라 불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작업으로 삼남기계공업사 건물에 ‘영도 사람들’이라는 벽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신혜미 작가를 만났습니다.

글·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이대한 운영팀장



▲ 2016년 페인팅시티 작업을 함께 했던 사람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신혜미 작가)

## 고향 바람

서만선(77, 대평동 1가)

헐헐 나는 갈매기 파도 타고 나 부산에 왔네  
사람소리 시끌벅적 쳐다보니 용두산이 보이고  
서산에 해는 지고 나 여기 정착했네  
조용한 시골 풍경 눈앞에 지어지고  
먼산을 바라보니 큰 나무 사이로  
조용한 달빛이 나를 달래며  
한아름 희망 안고 잘 살아 봐야지

### 글 쓰는 것, 어렵지 않아요!

#### 고향 바람

헐헐 나는 갈매기 파도타고 나 부산에 왔네  
사람소리 식물 벽적 치다보니 용두산이 보이고  
서산에 해는 지고 나 여기 정착했네  
조용한 시골 풍경 눈앞에 지어지고  
먼산을 바라보니 큰 나무 사이로  
조용한 달빛이 나를 달래며  
한아름 희망 안고 잘 살아 봐야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에서는 시화동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시는 시화동아리 회원인 서만선 할머니의 작품으로, 1979년 고향인 거제도를 떠나와 영도 대평동에 정착한 이야기를 회상하며 쓰신 것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시화동아리에서는 빼뚤빼뚤하지만 소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해도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으신 분께선 언제든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시화동아리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신청:**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100세까지 깡깡하게 살기 위해

## 꼭! 알아두어야 할 건강상식

### [봄철 건강의 스트레스 '알레르기 비염']

비염은 봄철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등은 코 점막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알레르겐)로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오면, 히스타민이라는 천연화학물질이 체내의 세포에 의해 방출되면서 코 안쪽에서 다량의 점액이 생성되고 부풀어 오르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콧물, 눈물, 두통, 가려움, 눈부심, 피로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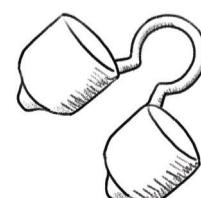
소아 때부터 발병하는 경우 잘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비부동염(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등을 유발하고 코로 숨쉬기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얼굴 발육의 기현상이 나타나거나 치아 부정교합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황사나 미세먼지 등 의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에 의한 자극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집 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연령이 비염을 앓을 수 있으며 특히 소아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예방과 치료 방법은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등을 피할 수 있는 전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는 비강 안에 착용하는 마개형 마스크가 있으니 착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후 의복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가급적 빨리 샤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 공기 정화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꽃가루 날리는 모습



▲ 마개형 마스크 모습

#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소식

깡깡이  
예술마을  
사업이란?

깡깡이예술마을 사업은 2015년 부산시 예술상상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도 대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 2017년 프로젝트 참여작가 공동워크숍 개최

지난 5월 26일 금요일, 2017년 프로젝트 참여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영도 깡깡이예술마을 사업단 사무실에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승욱 총감독과 김성연 (전)전시감독, 정만영 설치감독을 비롯해 사운드, 라이트, 키네틱, 아트벤치 등 퍼블릭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사업단 인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깡깡이예술마을 사업 소개 및 마을 투어 등의 일정을 가졌으며, 이후 작품 방향에 대한 참여 작가들의 1차 작품계획 발표와 설치 장소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퍼블릭아트 프로젝트는 한국 작가를 포함해 싱가폴, 일본, 독일, 브라질, 영국 등 총 17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며, 오는 7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9월 말까지 작품 설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17년 예술작업으로 더욱 새로워질 깡깡이마을의 모습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FOREST HEALING**

### 산림 탐방형 숲 치유 프로그램

"지겨운 워크샵 말고 숲 체험  
자연에서 위로 받는 숲 치유"

- 기업, 관공서 직무연수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진행)
- 유아, 청소년, 성인(일반) 숲 체험 프로그램
- 국내·외 힐링 투어 프로그램

포레스트 힐링센터 : 051-868-6454 / [www.forheal.co.kr](http://www.forheal.co.kr)  
<https://www.facebook.com/foresthealbusan>

### INFO

#### 기자모집

「만사대평」의 주민 기자가 되고 싶은 분은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평소 글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에  
관심 있는 대평동 주민분께서는 마을신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대평동을 다녀가신 분의 방문 후기를 받습  
니다. 긴 글 짧은글 상관없이 후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

051-418-1863

부산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생활문화센터 201호

[ydart2016@hanmail.net](mailto:ydart2016@hanmail.net)

#### 광고

「만사대평」에서는 지면광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광고, 행사 알림, 회원 모집, 각종 축하 소식(결혼,  
돌기념, 고희연 등) 등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정보와  
소식들을 마을신문을 통해 전해보세요.

- 광고료는 5x7cm(명함사이즈) 1만원, 11x8cm 2만원입니다. 광고료는 향후 마을신문 발행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만사대평」은 부산시내 주요 관공서, 공공도서관,  
영도구내 주요 관공서와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됩니다.
- \* 광고를 싣기 원하는 분은 깡깡이예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